



동양피스톤, 1분기 매출 744억원·영업이익 37억원

- ▶ 전방산업 부진과 환율 악화 영향으로 전년比 실적 하락
- ▶ 해외 계열사 본격 가동과 글로벌 고객사 확대 분위기 속에 실적 회복 자신

<2018-05-14> 자동차 피스톤 명가 동양피스톤(092780, 회장 홍순겸)이 올해 1분기 경영실적 집계 결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744억 원,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 1.4%, 영업이익 27% 감소한 수치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부진 기류에 원·달러 환율 조건 악화까지 영향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출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실제 동양피스톤의 미국 계열사 DYP ALABAMA(DYPA)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며 매출 78억 원을 달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0% 가량 상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르노 브라질, 터키 공장 부품에 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생산 차종에 대한 피스톤 공급 확대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2분기 이후 빠른 실적 회복 전망을 뒷받침한다.

동양피스톤 관계자는 “전방산업의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 해외 계열사들의 선전과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동양피스톤의 성장은 꾸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자료문의 : 동양피스톤 허재령 선임 (031-4899-040)
IR큐더스 이진영 책임 (02-6011-2000(#138))